

# 양계 경영 상의

## 부 기 회 계 (Ⅲ)

조 용 희

<영남대 축산대학 강사>

### 2. 손 익

#### 1) 손익(損益)이란?

손익이라함은 비용(費用)과 수익(收益)을 총칭하는 말이다.

양계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에 지불되는 경비보다 많은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데에 있다. 양계업은 영리활동(營利活動)인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자본을 증가시킬 원인이 되는 요소를 수익이라 하고, 감소시킬 요소를 비용이라고 한다.

양계경영에서 수익이란 계란매출, 육계매출, 계분매출 등의 생산물판매대금 이외에, 수입이자, 잡수입 등이며 육성계가 자라서 가치가 불어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증자(元入) 등 순수한 자본금의 증가)에 의하여 사업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수익은 실무상 이익(利益)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익을 순이익(純利益)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費用費用)은 가끔 손실(損失)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말해서 손실은 화재, 도난등의 순수한 손실을 말하고, 비용이란 가축치료비나 건물수리비를 지급하는 것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뜻하므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

기에서는 비용과 손실을 합쳐서 손비(損費)라고 하여, 손실도 비용에 포함해서 부르는 수가 많다. 그리고 비용도 수익과 같이, 사업주가 사용(私用)을 위해서 자금을 인출(引出)하는 경우등의 감자(減資)에 의한 것은 손비라고 할 수 없다.

양계경영의 비용에는 사료·약품·연료등의 소모자재의 구입대금 뿐 아니라 수도광열비·노임·운반비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경영활동에서 비용은 이상과 같이 직접 현금을 지불한 것 이외의 것도 있다. 가령 계란을 외상으로 50,000원 어치 외상매출했다고 하자. 이때 외상금은 일정한 기간후에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그 중 10,000원은 아무래도 못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매매이익 속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을 대손금(貸損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비용에는 전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농장에 있는 계사, 케이지와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책상 등은 직접 소모되는 것이 보이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사용을 거듭하는 동안에 결국은 망가지고 못쓰게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하면 한 회계기간 동안에는 얼마간 달아서 그 가치가 출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와같이 고정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감가(減價)라고 하며, 유동자산의 소비가 비용인 것과 같이 이런 고정자산의 감가액도 비용의 일종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부기에서는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라고 한다. 이 감가상각은 채란계나 종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손익항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닭이라는 동물자산을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양계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가 다른 사업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성과인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특히 비용에 관한 여러가지의 형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순이익을 과대 산출하기 쉽다.

그러면 경영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 2)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계경영자는 자기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운영하여 좀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한 회계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어느정도의 이익이 나왔는가를 알고자 한다. 이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손익계산(損益計算)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익계산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방법 즉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 ① 재산법(財産法)

양계장에는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의 거래가 일어난다. 따라서 어느기간이 지나고 보면 당연히 재정상태가 변화한다. 그러므로 기초(期初)의 자기자본과 기말(期末)의 자기자본은 같지 않게 되는데, 이 때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이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보아서 그 회계기간의 순이익을 아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불어나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자본이 줄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초와 기말의 자본을 비교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재산법(Inventory method)이라고 한다.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text{기말자본} - \text{기초자본} = \text{순이익(또는 손실)}$$

## 재 산 계 산

(대차대조표)

자  (기 말)	산	부	채	} 기말자본
		(기	말)	
		자	본	
		(기	초)	
		순	이	익

물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손익계산 방법을 예들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72. 7. 1의 서울양계장의 기초자산이 현금 ₩35,000, 사료 ₩45,000 닭 ₩120,000이고, 차입금 ₩50,000이라고 하면 개시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 대 차 대 조 표

1972년 7월 1일

현 금	35,000	차 입 금	50,000
사 료	85,000	자 본 금	150,000
닭	120,000		
	<u>200,000</u>		<u>200,000</u>

그런데 72. 12. 31에 가서 재산의 재고조사를 해보니 현금 ₩40,000 보통예금 ₩15,000 사료 ₩20,000 닭 ₩600,000 차입금 ₩200,000 외상매입금 ₩250,000이 되었다고 하면 결산대차대조표는 다음과같이 된다.

따라서 기말자본 ₩225,000 기초자본 ₩150,000 순이익 ₩75,000으로 75,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대 차 대 조 표

1972년 12월 31일

현 금	40,000	차 입 금	200,000
예 금	15,000	외상매입금	250,000
사 료	20,000	자 본 금	225,000
닭	600,000		
	<u>675,000</u>		<u>675,000</u>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초와 기말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評價基準)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가기준이

틀리면, 평가방법으로 인한 금액의 차이가 경영의 순손익에 혼입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재산법에 의한 순손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회계 기간에 2회만 재산 재고조사를 해보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 손익을 계산한다면 손익발생의 원인을 알아내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

### 손익법(損益法)

그런데 손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다. 손익을 계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회계기간 동안 들어온 모든 수익과 나간 모든 비용을 비교해 보고 알 수가 있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이 방법은 미리 매일 매일의 거래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이를 근거로하여, 기말에 총수익과 총비용을 계산하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순손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물론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는 모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증식액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총수익} - \text{총비용} = \text{순이익”}$$

사실 귀찮고도 많은 수고를 들여서 건건이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것은, 이와같은 손익법에 의해서 순손익 계산을 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서울양계장의 예를들어 보기로 하자.

서울양계장은 72년 7월 1일 부터 72년 12월 31일 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용과 수익이 있었다고 하자.

(내 용)	(수 익)	(비 용)
사 료 비		350,000
관 티 비		130,000
잡 비		45,000
계 란 판 매 수입	120,000	
닭수입(증식이익)	483,000	
계	600,000	525,000

그렇다면 손익계산은

수익(₩600,000) - 비용(₩525,000) = 순이익(₩75,000)이 된다.

이와같이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Profit & L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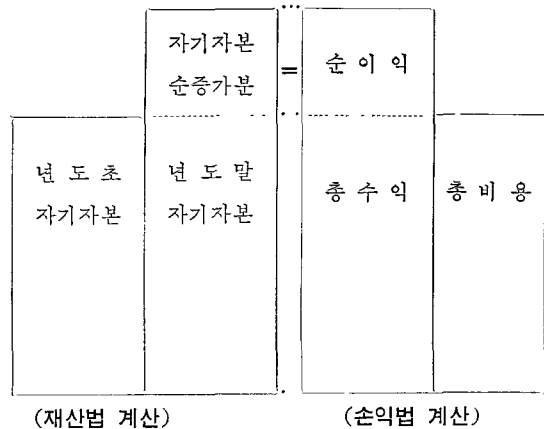
method)라고 한다.

우리는 위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써 재산법과 손익법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알았다. 물론 이 두가지의 방법이 다 손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나, 재산법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대해서, 손익법은 어떠한 원인으로 그와같은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손익법에서는 그런 원인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경영방침을 세울 수 있고, 장래의 경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면 때문에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손익법이 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재산법과 손익법은 다 같이 경영의 순손익을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계산상의 잘못이 없는 한 그 결과는 마땅히 일치해야 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재산법에 의한 순손익과 손익법에 의한 순손익이 왜 반드시 일치하는가는 차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하여튼 복식부기는



이 두가지의 계산이 동시에 행해지는 부기 방법이며, 이 두가지 계산방법의 결과를 비교시켜 봄으로써 각각 계산과정의 잘 잘못을 판정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이 두 계산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자동적으로 계산과정의 정부(正否)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복식부기의 자기감사기능(自己監査機能)이라고 한다.

### 3) 손익계산서(P/L)란?

기업은 일정기간에 있었던 경영활동의 성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회계기간 내에 발생했던 모든 비용과 수익을 각 항목별로 한 표에다 집합시켜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앞에서, 한 회계기간의 영업성적을 알기위한 손익계산의 방법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그 수익의 발생을 위해 소비된 모든 비용을 대응시켜서, 한눈에 손익의 경유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 일람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손익법에 의한 손익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고, 동시에 일정한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수익-총비용=순이익”이라고 하는 공식은 가법적감산식(加法的減算式)으로 고쳐져서 다음과 같이 된다.

$$\text{“총비용} + \text{순이익} = \text{총수익”}$$

이것을 손익계산서 등식(Profit & Loss Statement)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 공식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작성된다.

그러므로 T자형의 원편에는 모든 비용이 기입되고, 바른편에는 모든 수익이 기입되며, 좌우를 비교하여 바른편이 많으면 그 차액 만큼은 순이익이 되므로 원편에 기입하게 된다. 그리고 원편이 많으면 그 차액 만큼은 손실이 되어 바른편에 기입하게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계정식(計定式)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

손익계산서(계정식)

총	비	용	총	수	익
순	이	익			

과 같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대차대조표와 같이 계정식 외에 보고식이 있는데, 보고식에 있어서는 수익 비용 순서로 기입하고 그 차액인 순이익 혹은 손손실을 마지막에 기입하게 된다.

이제 앞에서 예를 든 서울양계장의 손익계산을 계정식과 보고식으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보고식)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이	익

손익계산서

자 1972. 7. 1

지 1972. 12. 31 (계정식)

사	료	비	350,000	계	란	판	매	수	입	120,000
관	리	비	130,000	타	수	입				480,000
잡	비		45,000	순	이	익				
순	이	익	75,000							
			600,000							600,000

손익계산서

자 1972. 7. 1~지 1972. 12. 31 (보고식)

수	익	계	란	판	매	수	입	120,000		
		타	수	입				480,000		
		(수	익	총	액)					600,000
비	용	사	료	비				350,000		
		관	리	비				130,000		
		잡	비					45,000		
		(비	용	총	액)					525,000
이	익	(순	이	익)						75,000

이리하여 복식부기법에 의해서 기록 계산된 결과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집합되며 양

자에서 나타난 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결국 대차대조표는 어느 일정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靜態的) 표시이고,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기간내에 발생한 비용 수익에서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있었는가의 이유 혹은 원인을 밝히는 동태적(動態的)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 4) 회계기간은?

회계기간이란 전 대차대조표 작성일부터 다음 대차대조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업이 일정한 기간의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에 관련된 개개의 모든 비용을 측정 계산한다는 것은 꼭 곤란하다. 그런고로 개개 수익은 개개의 비용과 관련없이 이 회계기간에 걸쳐서 집계하고, 또 개개의 비용은 개개의 수익과 관련없이 회계기간별로 집계하여 두었다가, 기말에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이유에서 회계기간(會計期間)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중요한 관련을 가진다.

여기서 일정한 회계기간의 경영개시 최초의 일자리를 기초(期初)라고 하고, 최후의 일자리를 기말(期末)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익계산은 거래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즉 회계기간을 정해 놓고 계산하는 소위 기간 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하는 것임을 앞서 말했다.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은 1년에 한번 이상 해 봐야 하므로, 회계기간은 보통 1년으로 잡는다. 물론 손익계산을 자주 해 보는 것이 좋으므로 한달에 한번씩 즉 회계기간을 1개월로 잡아도 좋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자주 손익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무가 번잡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양계경영에서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수익과 변동이 심할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자주 손익계산을 하면, 기말손익을 비교하므로써 참고로 삼을 수도 없고 업무량만 많아진다. 그러므로 회계기간은 1년이나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회계기간을 정하는 데는 형편에 따라 적당한 달 부터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역년제(曆年制)에 의하여 1월부터 잡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가축약품 염가판매

- ◎ 첨가제
- ◎ 예방약
- ◎ 치료약
- ◎ 백신
- ◎ 소독약

# 청량리가축약품센타

최신의 학술로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專門獸醫師 鄭洙植  
專門獸醫師 李角模

(한국육계회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58  
TEL 96-8780

